

전주시 대규모 축제 안전사고 예방 나서

5~6월 열리는 대시습놀이 전국대회·전주단오 안전관리계획 심의

전주시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축제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주시는 19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5~6월 중 열리는 제42회 전주대시습놀이 전국대회와 '2016년 전주단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

전주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및 시 관련부서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실무진으로 구성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참여 위원들은 △행사계획 및 부대행사 적정성 검토 △안전관리종합대책 수행 조직 구성 △운영 △안전관리 상황 발생 시 조치계획 △구조구급 행사장 안전관리 대책 △기타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대처계획 등 축제 개최 시 안전에 대한 불안요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안전관리 요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인 조봉업 부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축제기간 중 재난발생 시 기관별 역할분담과 임무를 명확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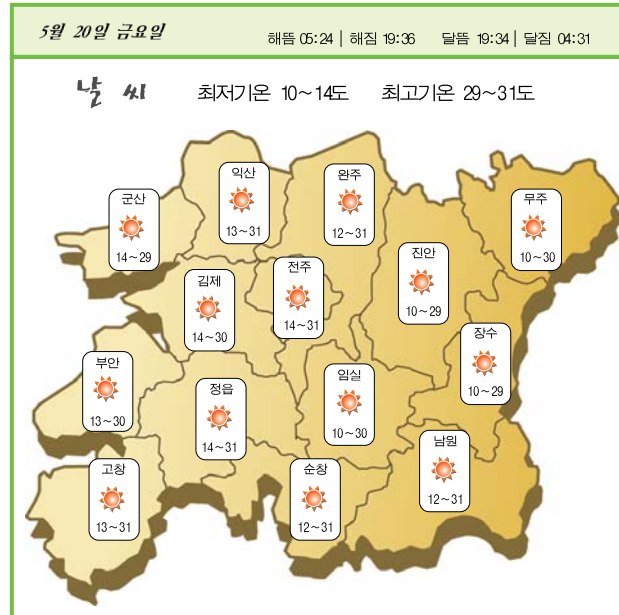
또한 시는 이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축제 주최기관과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축제 전까지 경찰서와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행사장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업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전주시는 지난 5년간 지역축제 인명

(사망)피해 5년 연속 제로를 달성했다"며 "올해도 철저한 안전관리계획심의 및 안전점검 병행으로 축제에 대한 불안요소를 차단해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와 개최장소가 산간 또는 수면이거나, 사용하는 재료가 불·폭죽·석유류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에 대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재기자



전주시-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건설 협약 체결

아동들이 모두 행복하고 존경받는 도시 조성 협력

어린이가 가장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건설을 위해 전주시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는 19일 김승수 시장과 서대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민선 6기 김승수 전주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이다.

아동친화도시(Child-Friendly City)는 1989년 유엔총회에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로 유니세프가 정한 10가지 원칙 57가지 항목의 평가지표를 통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게 된다.

시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이날 협약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생존·보호 발달 참여권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10가지 원칙 실천을 상호 지원하게 된다.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유니세프 10대 원칙은 △아동의 참여 △아동친화적인 법 체계 △아동권리 전략 △아동권리 전달기구 △아동영향평가 △아동관련 예산 확보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아동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등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정업무 추진 시 아동의 시각과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책과정 전반에서 아동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19일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서대원 사무총장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에 앞서 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2014년 12월 아동친화 IP팀을 신설 지난해 12월에는 아동의 안전한 생활 보장 아동의 의견 존중,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의 의무사항을 담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2월에는 아동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용역과 아동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아동실태조사·아동권리인식도조사·아동친화도 평가 용역도 발주했다.

민선 6기 대표정책이자 대한민국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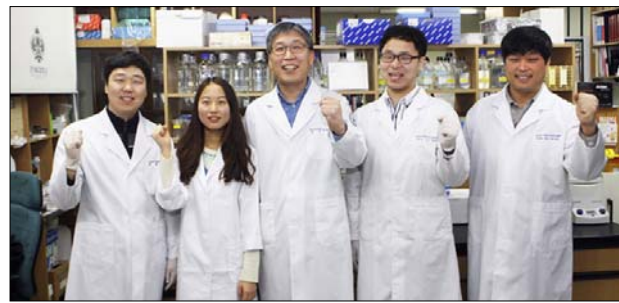
방자치 우수정책으로 손꼽히는 전주시의 밤 늦는 아이없는 엄마의 밤상도 아침밥을 굶는 아이들에게 이웃의 정성이 담긴 따뜻한 아침 도시락을 전달해 복지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시안경사회와 공동으로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소중함 아이(EYE)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관내 영유아 가정의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행복나눔 장난

감대여실'을 운영하는 등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김승수 시장은 "우리 아이들은 미래 전주를 책임질 소중한 자식이다.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행정과 시민 모두가 함께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모든 아이들이 시민으로서 각자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받고,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동등한 기회도 보장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재기자



전북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조의식 교수 연구팀 네이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 논문 게재

전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조의식 교수 연구팀(최화정 연구교수, 김택현 연구원)이 치주 조직의 형성을 조절하는 핵심 신호전달 경로를 규명하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련 학계는 성인 70% 이상이 앓고 있는 잇몸질환 예방과 치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과제명 : 노인 맞춤형 차세대 치과용 바이오 임플란트 시스템 개발 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됐고,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네이처(Nature)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최신호에 논문이 게재됐다.

연구팀은 분화 중인 백아모세포에서 질환을 일으키는 'Transforming Growth Factor-beta (TGF-beta)'의 신호전달이 차단되는 조직 특이적 유전자적중 생쥐를 제작해 치아를 턱뼈에 부착시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직인 백아질 형성 여부를 정상 생쥐와 비교·관찰했다.

그 결과 정상 생쥐와는 달리 실험 쥐는 백아질이 형성되지 않음을 실

험 결과 확인했고 백아질 형성을 위해서는 TGF-beta 신호전달이 필수적임을 밝혀냈다.

나이가 TGF-beta 신호전달은 백아질 형성과정에서 치아 뿌리 형성 과정에서 세포 분화를 조절하는 '오스테릭스(Osterix)' 발현 조절을 통해 작용함을 밝혔다.

TGF-beta 신호전달은 신체 내 많은 세포에서 세포의 증식과 분화를 조절하는 중요한 신호전달경로로 알려져 있다.

치아 및 치주조직을 형성하는 세포들의 분화와 기질형성 과정에는 TGF-beta를 포함하는 여러가지 성장인자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까지 정확한 조절기전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조 교수는 "백아질 형성을 조절하는 핵심 신호전달경로가 규명된 것은 손상된 치주조직의 재생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치주질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전북은행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